



# 곳곳 유희공간에 스며드는 예술의 향기

### 제주예술인협동조합 잇단 전시 하반기 '아트페어' 개최 준비도

지난해 7월 설립돼 릴레이 창립전으로 본격 활동에 나선 제주예술인협동조합이 잇단 전시로 도내 곳곳 유희공간을 예술의 향기로 채우고 있다.

지난해 10월까지 3차에 걸쳐 창립전을 마친 제주예술인협동조합은 이어 12월부터 제주민속촌에서 전시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달부터는 라마다프라자 제주호텔과 함께 호텔 1층 공간을 회원들의 작품 30

여 점으로 채워 도민과 관광객들에게 선보이고 있다. >> 사진

협동조합은 또 올 상반기 중 관광공사와 호텔, 리조트 등에서 추가 전시도 계획하고 있다.

협동조합의 송부미 부회장은 “도내 작가들은 전시 기회가 많지 않고 개인적으로 전시회를 진행하기도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도내 유희공간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전시공간으로 만들어가는 일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내의 작가와 컬렉터, 공연예술가 등 예술계 50여명으로 구성된 제주예술인협동조합은 제주 예술



분야 활성화와 창작활동지원, 전시 기획, 지원사업, 다양한 협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올 하반기에는 회원들과 국내의

예술인들이 참여하는 '아트페어(제주아트쇼)' 개최도 준비하고 있다고 전해 귀추가 주목된다.

오른지기자 eioh@ihalla.com

## 도립무용단, 무용의 즐거움 알린다

### 제주도노인복지관 회원 대상 무용교육... 7월엔 성과발표회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진흥원 도립무용단이 올해 찾아가는 무용교육을 통해 도내 어르신들에게 무

용의 즐거움을 전달한다.

'찾아가는 무용교육'은 도내 무용인구 확산을 위해 지난해 처음 도입한 사업이다. 도립무용단은 지난해 장전초와 덕력초에서 전 단원이 교육강사로 참여해 125명의 초등학생들에게 한산춤, 부채춤, 강강술래를 가르쳤다. >> 사진

올해 무용교육은 제주도 노인복지관에서 어르신 70여 명을 대상으로 이달부터 오는 7월까지 진행된다.

도립무용단은 그동안 공연을 통해 선보인 다양한 전통춤을 전문

무용수로서 보다 심도있게 지도하고, 도민과 가까이에서 상호작용하며 지역에 필요한 다양한 요구와 필요를 이해·수용하는 시간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번 교육프로그램은 장고춤, 화관무, 부채산조, 한량무 등 4가지다. 도립무용단 42명의 단원들이 직접 기획·운영함으로써 어르신들이 도립무용단의 향후 활동에 대한 흥미를 높이고, 추후 관객으로 다시 한 번 만나도록 이끄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이 마무리되면 배움의 결실을 선보이는 성과발표회(7월 17일 제주 문예회관 대극장)도 예정돼 있다.

오른지기자



## “새롭고 즐겁게” 하누리색소폰앙상블 창단연주

색소폰을 사랑하는 순수 일반인으로 구성된 아마추어 앙상블 '하누리색소폰앙상블(사진)'이 창단연주회로 첫발을 내딛으며 도민과 본격적인 음악 소통에 나선다. 연주회는 오는 14일 오후 4시 설문대여성문화센터서 열린다. 고성립 단장은 “열정을 담아 요망지계” 해보려 한다며 초대장을 띄웠다.

이날 무대엔 첼리스트 김지영을 비롯 화음플루트오케스트라와 박유나(피아노), 박수현(베이스), 이



병준(타악기)이 함께 올라 풍성함을 더한다.

한편 하누리색소폰앙상블은 “늘 새롭고 즐거운 화음을 지향”하며 다양한 연주활동을 펼치고 있다.

오른지기자

## 활기찬 호른 선율... 이인환 네 번째 독주회

제주 출신 호른리스트 이인환(사진)이 네 번째 독주회로 관객과 다시 만난다.

오는 13일 오후 3시 제주대학교 아라뮤즈홀에서 개최되는 독주회는 피아니스트 이희라와 작곡가 현민관이 함께한다.

이날 연주 프로그램은 총 3곡. 독일 작곡가 폴 힌데미트의 호른 소나타, 현민관의 '뮤직 드로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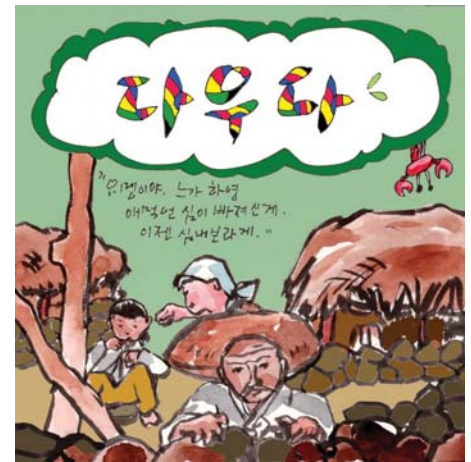
(Music Drawing)', 러시아 작곡가 라인홀트 글리에르의 호른 협주곡 Op.91 연주로, 활기차고 생동감 넘치는 무대를 관객에게 선사할 예정이다.

한편 이인환은 현재 도립서귀포관악단 상임단원, 제주호른앙상블 리더, 제주브라스퀼렛, 제주도레미, 루벨르앙상블, 줄리브라스과르렛, 제주브라스밴드 수석 멤버로 오케스트라와 앙상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오른지기자

## 고재만의 제주어기림한판 <399>

구성: (사)제주어보존회 <재만그림글자 응용>



하르바지 골멘, “오맹이 배려보난 너미 심이빠져신게. 오맹이야, 경 막 하영 속상하영 하지 말라. 웨왕 지동 이 하르바니 문 고쳐놓겨게. 담은 인칙에 문 다워 놓았지.”

즈네 골았저, “오맹이야, 느가 하영 애먹은 심이빠져 이실 때 곤는 말은 어떤 게 잇수과?”

오맹이 골멘, “하르바님, 나 추록 막 심이빠져 이실 땐 어떤 속담으로 놀아마쭈?” 하르바지 골멘, “오, 오맹이가 하영 심들영 혼는디 옹홀 때 곤는 말 잊저. ‘코가 선 땀 자나 빠정 이신게.’영 혼는 말로 혼오민 혼 품이라도 위로가 뉘 수가 이신 거여게. 사름덜이 하간 일을 혼당 보민 쉬운 일만 이신 거도 아니고 심든 일이 이셔도 억지로 혼게 뉘다. 경 혼다 보민 심이 빠정 지치게 뉘메. 경 혼난 하간 거에 맹 심하영 일을 혼라는 말이여게.”

### 제주어 풀이

- \*배려보난 : 보니. \*경 막 하영 : 그렇게 많이.
- \*속상하영 하지 말라 : 속상해 하지 마라. \*웨왕 지동 : 소의 외양간 기둥.
- \*문 고쳐놓겨게 : 다 고쳐놓게 \*다우다(다다,다웁다,다오다,달다) : <움직>답장 따위를 돌로 쌓다. \*느가 하영 애먹은 : 네가 많이 애를 쓴.
- \*심이빠져 이실 때 : 힘이빠져 있을 때. \*곤는 말은 어떤 게 잇수과? : 얘기하는 말은 어떤 것이 있어요? \*나 추록 : 나 처럼.
- \*심이빠져 이실 땐 : 힘이 빠졌을 때. \*놀아마쭈? : 얘기하나요?
- \*하영 심들영 혼는디 : 많이 힘들어 하는데. \*옹홀 때 곤는 말 잊저 : 이럴 때 하는 말이 있어. \*빠정 이신게 : 빠져 있구나.
- \*영 혼는 말로 혼오민 : 이라고 하는 말로 하면. \*이신 거도 아니고 : 있는 것도 아니고. \*심든 일이 이셔도 : 힘든 일이 있어도. \*혼게 : 뉘다 : 하게 된다.

고재만 화백

## 도서관·호텔서 만나는 제주 웹툰콘텐츠

###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비짓웹툰' 전시 운영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은 포시중앙도서관(5월 1~31일), 서부도내 도서관 및 호텔로 찾아가는 전시프로그램 '비짓웹툰'을 운영하고 있다. 전시작은 제주웹툰캠퍼스로부터 지원사업을 받아 제작된 웹툰콘텐츠로, 제주 웹툰 작가들의 작품 10점을 볼 수 있다.

현재 헤이서귀포 호텔(이달 30일까지)에서 진행 중이며 이어 서귀

포시중앙도서관(5월 1~31일), 서부도내 도서관(6월 17일~7월 17일), 삼매봉도서관(8월 6일~9월 5일)에서 진행된다. 전시 장소 및 기간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진흥원 관계자는 “제주 웹툰콘텐츠 전시를 통해 지역 주민들과 시설 이용객들이 예술과 문화에 대한 영감을 얻길 바란다”고 전했다.

오른지기자



## 2024 제주인명록 발간

한리일보가 제작한 「2024 제주인명록」이 발간됐습니다. 「2019 제주인명록」 발간 이후 5년만입니다. 도내·외 인사 3000여명이 수록된 이번 인명록에는 2023년 11월말 기준 도내 주요기관·단체 인사는 물론 국내·외에서 뛰어난 활약으로 제주인의 기개를 드높인 인사들의 현직 및 주요 경력 등이 정리됐습니다.

제주도민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관심을 바랍니다.

규 격 | 4X6배판 정 가 | 15만원  
입금계좌 | 농협 981-17-006824



**한리일보** 구입문의 : 064)750-2531